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 방안 연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

A Study on the Accumulation and Use of Corporate Records: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as a Big Data Platform

김성우(Sung-woo Kim)¹, 이해영(Hae-young Rieh)²

E-mail: sungwookim@hanmail.net, hyrieh@mju.ac.kr



¹ 제 1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
² 공동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교수

논문접수 2020.07.22
최초심사 2020.07.25
게재확정 2020.08.17

ORCID

Sung-woo Kim
<https://orcid.org/0000-0002-8475-8008>
Hae-young Rieh
<https://orcid.org/0000-0002-6300-2543>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본 논문은 김성우의 석사학위논문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 연구 -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2020)를 요약·수정된 것임.

초 록

기업의 기록관리를 통한 가치창출과 편익제고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기업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기업들은 업무과정의 산출물인 기록을 정보자산으로 축적하고 이용하여 업무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용기록관리보다는 사서편찬이나 사료관리 등 비현용기록 관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K사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을 통한 가치와 편익을 찾아보고, 기업기록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를 조명하며 기업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reation of value and the enhancement of benefits through records management by enterprises are comparable to those by public institutions. However, Korea has yet to establish guidelines on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Global companies are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by reducing trial and error in their work through the accumulation and use of records as information assets, which serve as the output of their work processes. While Korean companies agree on the necessity of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most of them are concerned with archival (noncurrent records) management, such as historical compilation and historical data management, rather than records (current record) management. Therefore, through a case study of a K-company with effective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identifies methods to promote the accumulation, use, and management of corporate records in line with the search of value and benefits. Moreover, the company emphasizes the management of corporate records as a big data platform that accumulates and uses data, which i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poses measures for their revitalization.

Keywords: 기업기록, 기업기록관리, 위험관리, 현용기록관리, 빅데이터플랫폼

Corporate records,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Risk management, Current records management, Big data platform

<https://jksarm.koar.k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록이 없는 기업’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한 업무과정의 결과인 기록물이 반드시 생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기록을 담당하는 국가기록원에 서도 기업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학계의 연구도 많지 않다. 그나마 기업기록을 관리하는 기업이나 관련 연구들을 보면 기업의 창업주 관련 역사관이나 사사(社史)편찬 및 사료관리 등 비현용기록관리(이하 AM, Archival Management)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현용기록관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각 기업들은 「상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 기업경영의 기록을 생산,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법」 제33조는 상인이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고, 전표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도 산업재해 발생기록,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혜영, 2018). 이러한 법과 제도적인 기록물외에도 기업에서 통용되는 보고서, 회의록, 기안지, 결재서류, 행정박물 등 많은 기업기록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고객관계관리(CRM), 생산관리, 영업관리 등 경영현장에서도 무수히 많은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기업기록이란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생산, 획득, 이용, 처분의 과정을 거치는 ‘기록 생애주기’를 따른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록관리를 연속적 보관으로 인식하여 탈보관주의 접근방식을 취하는 ‘기록 연속체 개념’ 역시 기업에도 적용된다(서혜란, 2018). 특히, 기록 연속체 개념은 전자적 기록관리 환경을 잘 반영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을 주로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기록 생산과 동시에 보존기간과 방법 등을 정해야 하며,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책임과 증거적가치가 높은 현용기록관리(이하 RM, Records Management)²⁾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현용기록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현용기록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보다는 기업이 현용기록관리를 통해 어떤 편익(benefit)을 얻을 수 있는가를 확인한 다면, 기업 특성상 스스로 현용기록을 축적하고 이용하게 될 수 있다. 특히, 기록에 대한 가치와 편익 가운데 기업기록은 빅데이터의 원천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산업혁명의 원천이 증기동력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인공지능(AI)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기록이 축적되어야 빅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기록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정보자산(information assets)이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밑거름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기록관리의 가치와 편익을 찾아보고 기업의 현용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있다. 기업은 현용기록관리 활성화를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경험자산을 축적하고 차별화된 정보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자사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현용기록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제고할 수 있는 사료(史料)관리 등 비현용기록 또한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1) 비현용기록관리(Non-current Records Management) 혹은 보존기록관리(Archival Management)란 기록의 평가, 수집, 정리, 기술, 보존, 정보서비스, 확장서비스, 기타 이용자 서비스 등 보존 기록과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되는 보존 기록관 또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 정책의 관리 및 감독(한국기록학회, 2008).

2) 현용기록관리(Current Records Management) 혹은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란 기록의 생산, 유지, 활용, 처분의 체계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 분야. 기관이나 조직에서 현재의 종결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기록을 의미. 일반적으로 현용 기록은 해당 업무 수행부서에서 관리(한국기록학회, 2008).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99년에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민간기관의 기록관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고, 기업의 기록관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학계에도 나타난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사이트에 등재된 2019년 학위논문 제목에 ‘기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총 152건이 검색되는데, 여기서 기업기록과 관련된 논문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기록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2000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발간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기업기록관리’와 김익한(2000)이 경남대 기록관리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의 기업기록관리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록 대비 기업기록과 관련된 연구가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기업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도 김화경(2007), 임종철(2007), 이동혁(2018) 등 기업의 사료 관리시스템이나 역사관 운영 등 비현용기록관리(AM)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학회나 포럼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0년 한국기록학회 등이 주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창립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기록관리를 통한 기업경영과 지방행정의 발전을 주제로 기업 및 지역공동체와 문화유산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아카이브즈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며, 독일 머크(Merck) 박물관 사례, 프랑스 생고뱅(Saint Gobain) 아카이브즈 사례, 홍콩 HSBC 아카이브즈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나 현용기록관리에 대한 사례는 없었다. 2019년 기업기록을 주제로 열린 한국기록학회 제128회 월례발표회에서도 비현용기록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정미리(2016)의 기업의 증거기반 설명책임성을 위한 기록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발표가 비현용기록관리의 범주를 벗어난 사례였다.

이처럼 기업의 현용기록관리(RM)와 관련된 연구가 제한적인 가운데, 현업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정기에(2007)의 기업의 기록관리 정책수립과 기록물처리일정표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정기에(2010)의 SOC 건설사업의 기록관리 체계화 연구, 그리고 정기에, 이정훈, 남영준(2011)의 위험관리체계의 기록관리표준 적용방안 연구 등이 민간기업의 현용기록관리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기에(2010)는 해외 사례를 들어,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구사항들이 기업의 기록관리를 견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에 최근 몇몇 연구들이 기업기록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설문원, 이해인(2016)은 기업의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박용기(2016)는 공기업 기록경영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여 공기업 경영체계 관련 필수 조직 구성원의 각 요소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성이 강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공기업의 경영관리, 기획, 인사노무, 재무, 감사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566개의 설문조사를 받아 분석하였다. 이진석(2018)은 국내 기업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기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서비스 모형들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기록관리 실태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박서인, 김지현(2020)도 공공기관이면서 민간기업의 성격을 갖춘 공기업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기업 기록관리의 현황과 각종 소송에서 기록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록의 법적인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록학적 관점에서 기록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며,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설명책임의 의무를 강조했다.

기업의 현용기록관리(RM)와 관련된 학회나 포럼들을 보면 2009년에 개최된 국제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컨퍼런스는 기록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0300시리즈 공표를 앞두고 기업의 현용기록관리(RM)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Ellis(2009)는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의 개념과 내용 및 의의와 호주의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직에서 기록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017년에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그리고 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기업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조윤희(2017)의 한국남동발전 기록관 운영 사례와 정혜린(2017)의 원자력 설계기록 품질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방안의 공유는 기업의 성공적인 현용기록관리(RM)에 대한 유의미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조송암(2017)은 4차 산업혁명에 데이터와 기록경영의 역할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업기록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지만 빅데이터의 원천으로 주목받는 데이터와 기업기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가운데,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예를 들면 서무경, 정이상(2019)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마케팅과 고객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가운데 비정형 소셜 데이터를 주목하며 동적 정보로서 이용자들의 생각과 행태를 담고 있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임진희(2019)의 연구에서, CRMS 도입을 맞아 생각해보는 디지털 시대의 기록관리에서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CRMS)의 보급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록의 보존과 활용 방안도 재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포맷으로의 디지털 변환(DT)을 강조하였다.

1.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기업의 현용기록관리(RM)로 한정하였다. 기업의 정의나 분류는 이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기업(회사)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정의나 기록관리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민간기관이나 기업의 기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의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기록에 대한 범위를 what, why, how로 구분하여 기업과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즉, 무엇이(what) 기업기록이며 현황은 어떠한가, 왜(why) 기업기록을 관리해야 하고 필요성은 무엇인가, 어떻게(how) 기업기록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기업의 현용기록관리에 대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기업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기업기록관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 이 연구를 시작하는 출발선으로 삼았다. 둘째, 심층 인터뷰는 기업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현용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의 현업 실무자 4명의 경험적 사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장단점 등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연구가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기록관리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이 적합한 기업도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에 대한 이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목받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기업의 현용기록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2. 기업기록과 기록관리

2.1 기업기록관리 현황

기업이 경영 활동을 지속하는 한 업무과정의 산출물인 기록물은 반드시 생산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기업의 기록물은 모두 그 가치를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하기에, 그만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기록관리를 통해 막대한 정보량과 기록량의 증가에 따른 관리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내에 유통되는 정보 및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기록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를 지식자산으로 창조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김익한, 2000).

따라서 기업에서 기록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업이 그동안 수행했던 활동들을 추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감사활동도 보장한다. 또한, 조직의 법적,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어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에서 기록관리의 역할은 업무 효율성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에 기록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IT중심의 업무환경은 단순히 총무나 행정의 하부기능만으로는 효율적인 기록관리가 어렵다(정기애, 2007).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목받는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의 원천이 되는 빅데이터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경영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처가 될 수 있다(조송안, 2017). 기업에는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기록이 있으며, 그 기록이 곧 데이터의 시작이고, 기록관리는 빅데이터 축적과 이용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플랫폼(big data platform)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공공기관 이외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관리에 비해서도 기업기록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박용기(2016), 이진석(2018), 박서인, 김지현(2020)의 연구에서도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록물법의 영향을 받는 공기업 모두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각 조직의 인식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헌조사에 의한 기업기록관리 현황 파악이라는 논리적 한계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인 기업들의 기록관리 현황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기업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식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 최근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한 박서인, 김지현(2020)의 연구에서도 공기업의 기록연구사들은 기관에서 기록관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고, 위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업무로 여겨질 뿐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저조하다고 응답하였다. 기록관리가 부실한 부서는 기록의 존재여부를 확인이나 적시에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소송대응의 효율성과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진석(2018)도 민간기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1%의 기업이 기록관리 담당자나 관련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9%도 IT나 총무업무와 겸업한다고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은 기록관리에 책임(責任)이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록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상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된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법적인 조건이 끝나면 대부분 폐기해 버린다. 더구나 기업 내부에서 통용되는 보고서, 회의록, 기안지, 결재 서류 등은 대부분 내부에서 조차 잘 공유되지 않는다. 고객관계관리(CRM), 생산 및 영업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심지어 같은 회사의 임직원들도 소속 조직이 다르면 업무에 참조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미국은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SOX(Sarbanes-Oxley)법 등을 제정

하여 법적으로 기업기록관리를 강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정통성을 유지하며, 소송에 대비하는 등 위험관리와 품질경영 등을 위해 폭 넓게 활용하는 등 기업기록의 축적과 이용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기록은 위험관리와 품질경영에 활용되는지, 혹은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성은 높은지, 데이터로 활용하는지 등을 파악해 보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은 기록관리를 경계(警戒)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사를 방문하면 입구에서 대치가 벌어지는데, 출입을 제한 할 목적이라기보다 그 시간에 컴퓨터나 서류 등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더 조심스러운 건 기업기록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정권 바뀌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숙명인가 봅니다”라는 신문기사(송충현, 2020)를 보면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정권에 따라 업무의 접근 방식과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는 상황을 공직자로서 가장 힘들어한다고 했다.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1%가 ‘정권에 따라 일의 결과물이 달라질 때’라고 답변했다. 어떠한 정책이나 기준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다르다는 잣대로 본다면, 애써 관리하는 기록이 기업에게 불리한 증거적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회계표준(IFRS)도 외환위기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도입되었는데, 현재 기록관리 국제표준(ISO-15489)이나 기록경영시스템(ISO-30300)을 도입한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록관리에 대한 법적 혹은 제도적 요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규정 23 CFR 710.201, Title 23은 고속도로 관련 규정인데, 이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관은 그 입수와 토지의 관리 행위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운송국의 연방고속도로 행정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은 프로젝트 개발안내서 Project Development Guide(PDG)에서 연방정부의 원조를 받은 프로젝트에서는 기록의 유지가 필수사항(requirement)임을 밝히고, FHWA의 감독은 그 지원 기관의 다양한 공공도로의 기능적 프로젝트나 절차의 검토, 파일 감사, 재정 감사 등을 통해 포착된(acquisition) 활동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뤄진다고 밝혀(정기애, 2010),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가 기업의 기록관리를 요구함으로써 기업기록관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기업의 현용기록관리 필요성

기업의 현용기록관리 필요성은 정체성 확립, 투명성 제고 그리고 효율성 강화로 요약되어 왔으며,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은 기록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여주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영리추구와 정보자산의 축적과 이용을 통해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최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의 현용기록관리 필요성이 주목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의 위험관리경영(Risk management)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용기록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들은 업무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에 인하여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에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록관리를 조직의 위험관리체계와 연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직의 존립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따라 적절한 보안 등급과 보존 기준이 적용되고, 기록관리 영역의 위험관리요소를 추출해 조직 전반의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기록관리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된다(정기애, 이정훈, 남영준, 2011). ‘기업, 데이터경제서 살아나려면 위험관리부터 데이터 기반으로’라는 언론기사(서동철, 2020)를 보면 최근 경영·경제 5개학회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데이터분야에 집중되는 가운데 위험관리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비정형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행적인 위험관리 분야의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둘째, 기업의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용기록관리가 필요하다. 기록관리는 조직의 업무품질, 경영품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조직의 핵심역량이 반영된 지식자산으로 전환되고, 궁극적으로 경영품질을 결정한다. 경영품질이란 품질을 통하여 경쟁력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경영개선활동을 전개하여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즉, 업무처리는 경영의 단위활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영품질은 업무처리와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품질 평가모델 속에 기록관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기록관리표준이나 규제요건 속에 경영품질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통해 경영품질과 기록관리의 상관성을 추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정기애, 김유승, 2009).

셋째, 기업의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용기록관리가 필요하다. 기록의 지식자원화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의 경영성과는 지식자원과 이것을 관리하는 도구 및 업무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되며, 지식자원의 범위에 80% 이상은 조직 내부의 업무 성과물인 기록을 포함한 형식지(形式知) 분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최근의 경영환경에서는 지식경영의 확산과 e-Business등의 새로운 환경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자본이 주주의 주요 수익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이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재편되고 있다(김효근, 2009). 특히, 지식경영의 핵심은 각 기업마다 기밀로 여겨지는 현장의 묵시적인 경험이나 관찰 등을 통해 어렵게 획득 및 전수하였던 암묵지(暗黙知, tacit knowledge)가 공유된 언어 및 문서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형식지(形式知, explicit knowledge)로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기업기록관리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업무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자산의 원활한 이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있다. 현용기록관리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기록의 축적과 이용으로 기업의 살아있는 기록, 활용 가능한 기록의 관리를 통하여 업무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을 현용기록관리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원천으로 기업기록이 주목받으며 <표 1>과 같이 기업기록의 가치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1> 기업기록의 가치와 범위의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 이전	4차 산업혁명시대 이후
기업기록의 가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identity)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립 - 역사관 설립, 사사편찬 등에 활용 •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 제공 -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 • 효율성(efficiency)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추구 - 경영활동의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경영(Risk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규제 강화 및 소송 등 대응 - 위험 대비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 •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 조직의 핵심역량이 반영된 정보자산 •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과정에 대한 경험 축적 - 차별화된 지식 이용과 혁신활동 지속
기업기록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현용기록관리(AM)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기록 중심의 관리 • 사료(史料) 관리 위주의 기업기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시스템 운용 - 역사관 설립, 사사편찬 등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용기록관리(RM)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를 통한 데이터 축적과 이용 •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축적과 이용을 위한 플랫폼 - 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 활용

2.3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의 의미

이정동(2017)은 그의 저서 『축적의 길』에서 각 산업 분야마다 세계적으로 업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챔피언 기업들은 새로운 ‘개념설계’를 제시하면서 비즈니스나 산업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산업을 스스로 창출하고, 스스로 독점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챔피언 기업들이 그려준 밑그림을 받아와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성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개념설계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념설계 역량은 사오거나 아이디어 하나 얻었다고 금방 생기지 않는다. 오래도록 직접 그려보고 적용해보면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기억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념설계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산업의 혁신적 도전은 기억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업에서 그 기억시스템이 바로 기록관리시스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기록의 선별과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지식정보자산(knowledge information assets)으로써 기록관리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접수하여 1차적으로 기록을 이용하고, 축적과 관리를 통해 2차적으로 새로운 융합의 기록을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기업기록 축적의 성과가 된다. 축적 없이 이를 수 있는 성취는 제한적이다. 기업의 개념설계 역량은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이룬 치열한 시행착오의 결과이며, 업무 프로세스마다 축적의 산물이 없다면 이를 수 있는 성취도 없을 것이다. 현재 업무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기록들이 축적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 즉 기록의 축적과 이용은 곧 정보자산의 축적과 이용인 것이다.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의 이용에 있다. 기록관리를 통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의 잠재적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목적이다. 기업기록도 마찬가지다. 기업기록은 더 이상 기업기밀이 아니며, 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정보자산이다. 최근에는 기록의 가치와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위험관리경영, 품질경영, 지식경영을 통하여 차별화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록관리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활용하여 통찰력을 갖고 내재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공의 가늠자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가치창출이란 쉽게 말해 기업의 매출과 수익 그리고 고객만족증대 등을 말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꼭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통찰력을 갖고 싶은가? 빅데이터를 들여다보라’라는 신문기사(조성준, 2020)를 보면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Xerox)사는 콜센터 상담사의 조기 퇴사 문제를 빅데이터로 해결했다고 한다. 그동안 축적된 이력서와 심리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조기에 퇴사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도출하고, 그런 특성을 가진 지원자를 처음부터 고용하지 않아 조기 퇴사율이 약 20% 줄었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조기 퇴사자의 특징을 미리 확인하여 기업의 인사업무에 활용한 사례다.

특히,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현장의 통찰력’이다.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기록관리를 통해 생산하는 빅데이터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그러나 남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은 ‘살아있는 현장의 기록’에 기반한 빅데이터 플랫폼이며, 실무담당자들이 얼마나 현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시장의 재발견도, 이종(異種) 데이터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현용기록관리를 통한 자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 역량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3. 기업의 현용기록관리 사례 연구

3.1 K사의 현용기록관리 사례

‘K사, UAE에 원전 배관관리 프로그램 수출’이라는 언론기사(고은지, 2020)를 보면 K사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사가 발주한 배관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입찰에서 미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원전배관관리 프로그램을 수출하게 되었다. K사의 이 프로그램은 20여 년간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다가 국산화에 성공한 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신뢰성, 효율성, 적합성 등을 인정받아 굿소프트웨어(GS) 인증도 취득하였다. 또한, ‘K사, 원전설계 해외매출 세계 2위’라는 언론기사(김영현, 2016)에서도 K사는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ENR誌가 집계한 원전설계 부문 해외 매출 순위에서 세계 2위에 선정되었다고 하였다. K사는 이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K사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과동 위기를 겪으면서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되었다. K사의 기록관리 실무자 면담³⁾에 의하면, K사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중심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기술구조에서 독자적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기록관리시스템(Digital Library으로 명명) 구축을 시작 했는데,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HW와 SW 등을 구비하는데 40여억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반기업으로는 쉽지 않은 규모의 단일 투자였는데, 그 때만해도 캐드(CAD) 및 워드파일 등의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모두 PM(project manager)이 관리하는 구조였기에, 기업 내부 엔지니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자산을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절차(procedure)를 만들고, 약 3년 정도 운영하면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무절차서, 매뉴얼 및 설계도면 등이 구비되자 엔지니어들의 이용 빈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이 기록관리시스템은 K사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지속적인 현용기록의 축적과 이용으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사만의 고유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발전한 것이다.

정혜린(2017)은 K사의 사례를 기업의 현용기록과 관련된 성공사례로 공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K사의 현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과정이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하여, K사를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업의 현용기록관리(RM)에 대한 선진사례를 찾아보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록 관리시스템의 구축 배경이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사례 공유는 다른 기업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례연구를 위해 K사의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먼저, 실제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던 담당자 1명(A),⁴⁾ K사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자 1명(B),⁵⁾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당시 경영진 1명(C),⁶⁾ 그리고 현재 기록관리 실무자 1명(D)⁷⁾을 심층 인터뷰 하여 기록관리 실무과정에서의 결정과 시스템 구축의 과정과 문제점 해결 방법 등을 다양하게 알아보았다. 인터뷰 과정은 먼저 K사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초기에 구축을 추진한 A와 B를 직접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당시의 경영진 1명(C)에 대해서는 전화 인터뷰를, 그리고 현재 K사에서 기록관리시스템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실무자 1명(D)과는 유선 및 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실무자와의 면담. 2020. 02. 04(A), 2020. 02. 18(B). 면담장소: 서울.

4) Interviewee A: K사 기록관리담당자, 기록관리전문기업 운영.

5) Interviewee B: K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책임자, 기록학박사.

6) Interviewee C: K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당시 경영진.

7) Interviewee D: K사 기록관리시스템 현재 실무 담당자.

3.1.1 기록분류 및 정리 기준

▶ K사가 생산하는 기록의 종류는 크게 관리행정기록과 설계기록으로 분류되는데, 관리행정기록은 각종 결재 문서, 학술 교육자료, 논문, 세미나 자료 등을 업무관리시스템, 교육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에서 포괄하고 있고, 설계기록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종 문서, 서신, 리포트 등을 설계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등에서 포괄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기준이 무엇 인가요?

• 처음에 입사를 하니 기록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았습니 다. 기록이 생산되기 이전부터 기록의 가치가 업무의 가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하는데 기업의 핵심가치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기록의 가치는 업무 프로세스의 가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행정기록이 무엇인지, 설계기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었지 요. 먼저,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나 절차 등을 확립하여 기록을 구분하였습니다. (Interviewee B)

▶ K사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대내외 규제를 적용받는데요, 사규 및 품질경영계획서 등 K사 자체의 정책(policy)은 물론 표준건설 및 감리절차서, 표준자료관리 절차서, 표준설계관리 절차서 등 경영방침(instruction)과 함께, 사업자료 관리지침 등의 절차와 지침(procedure & manual) 등이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무슨 기준으로 구분하였나요?

• 원전설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든 기록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였고, 프로젝트가 종료되어도 적어도 30~50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록들이 많았어 요. 그래서 각종 매뉴얼도 많았고, 업무절차서 등이 많았지요, 특히, 회사의 모든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EWS [Engineering Working Schedule]단계이기에 WBS [Work Breakdown Schedule]에 들어 있었으니 전체 프로시져[업무과정 절차, procedure]에 맞게 기록을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Interviewee B, Interviewee D)

▶ K사의 사업 특성상 사업기간이 길며 대량의 자료가 발생하는데요, 1단계 사업 진행 중 자료관리는 사업개발, 예비사업, 설계 및 건설 등 10~15년간 생산/접수/배포/이관 등의 과정을 거치며, 2단계 사업 종료 후 기록관리는 가동 및 해체까지 약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활용/폐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준공된 신고리 1,2호기의 경우 608,092건, 2015년 준공된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550,677건의 기록(정혜린, 2017, p. 46)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었나요?

•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별로 어마 어마하게 많은 기록이 생산되는데 그 기록들은 모두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의 개인 소유물처럼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의 성과가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는 가로 판가를 날 정도로 특정한인에게 잘 보여야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퇴사하거나 조직을 이동하면 관리하던 기록들은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의 정보자산인 기록들이 개인소유물처럼 관리되었습니다. (Interviewee A)

3.1.2 시스템 구축 과정

▶ 2011년 제정된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0300시리즈는 물론 2001년 기록관리 국제 표준인 ISO 15489가 공포되기도 전인 1990년부터, K사는 자체적으로 40억 원 가까이 투자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의 생산과 접수, 이용 그리고 처분과정을 거쳐 보존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기록 생애주기 개념을 기록관리시스템에 구현하여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현용기록은 물론 프로젝트가 끝난 준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도 모두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지난 2015년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기술 단종 및 기술지원 곤란, 신규 기술 연동의 어려움, 검색 엔진 및 서버 노후화 등의 이유로

최신 검색 엔진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배경은 무엇이며, 시스템 구축 시 제일 먼저 업무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원전설계를 시작하면서 [K사 자체적으로] 우리의 기록관리가 본격 시작되었어요. 당시엔 PM에게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열람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를 회사 소유로 천명하면서 모든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관련 기록들을 자료실로 넘길 것을 절차화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개인 간의 기록이동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의 업무 절차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었지요. 프로젝트가 끝나려면 자료실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바꾸었지요. “당시로는 웬만한 대기업들도 업무도 못 낼 정도로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축하고 모든 프로세스마다 절차서를 만들고 시스템화 시키는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erviewee B)

▶ K사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당시에 다른 기업들은 시행하지 못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업무 분석을 하고 절차서를 만들고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예상하였으며, 더구나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이러한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HW와 SW를 직접 구매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요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처럼 전산화가 거대한 물결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당시에 Y2K니 밀레니엄버그니 하면서도 전산정보의 발달로 지식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 해외의 글로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오던 일을 우리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이나 용어 그런건 전혀 모르고, 오로지 업무 절차에 맞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를 나온 사람은 물론 정보통신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담당 엔지니어가 함께 협력을 하니 회사의 업무절차에 맞는 그런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구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회사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nterviewee C)

3.1.3 구축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 K사는 전문 인력 위주의 기록관리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표준을 준용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리 방향을 확정하였고, 중점 기록관리 대상은 업무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와 정당성확보와 위험대비를 위한 기록관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후속 발전소 설계 시 참조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이상 조치를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업무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와 함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로서의 기록 보존은 물론 정당성 확보와 위험대비 등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였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가요?

• 처음에는 업무절차에 따라 기록들을 관리하고, 특히 해당 사업의 모든 자료나 파일을 자료실로 이관을 해야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었더니 엔지니어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고 자료가 축적되고 이용도 빈번해지니 사람들이 수긍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기록들이 축적되고 또 그 기록들을 이용하면서 업무에 효율성이 높아졌지요. (Interviewee B)

3.1.4 경영진의 협조

- ▶ 초기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구상하면서도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경영진들이 쉽게 승인 해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해외의 글로벌기업들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조금씩 운영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을텐데요, 그 당시 K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던 경영진에서 기록관리시스템 도입과 구축 및 운영 등을 승인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첫째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었습시다. 그 당시에는 외국의 설계기록 등을 많이 도입하였는데, 그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회사의 정보자산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의 QA[Quality Assurance] 등에 따라 공개범위라든지 법적 보존 연한 등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법적 요구사항에 부응하면서 회사의 지식자산이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둘째는, 이 기록이 쌓이면 다른 부서의 엔지니어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업무자체가 여러 부서에서 코디네이션을 잘 해야 하는 업무인데, 드로잉설계, 혹은 계산 등, 원자력 측량 계산, 엔지니어링 기본 계산 근거, 이런걸 보여주고 근거를 남기는 업무이기에 증거적 가치가 중요했거든요. (Interviewee C)

이상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본 K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활용의 성공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전사적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인식이다. K사 특성상 기록이 많이 작성 및 획득되고 이를 전사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였다. 둘째,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다. 요즘은 기록관리시스템의 HW나 SW 등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IT팀이나 혹은 실무팀 등에서 독단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관련 부서들이 모두 모여 협업을 하였기에 전사적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 한 기록의 축적과 이용이다. K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추어 단계별로 어떤 기록물이 생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기록물처리일정표에 준하여 체계적인 절차로 관리함으로써, 기록물들이 효율적으로 축적되고 이용될 수 있었다.

3.2 종합 시사점 및 소결

K사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했던 전·현직 실무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 연구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현용기록관리가 K사의 핵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업무과정의 경험을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용하여 타사와 차별화된 지식 정보자산(knowledge information assets)을 확보함으로써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현용 기록관리가 K사의 경영관리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용기록관리를 통하여 법정 분쟁이나 소송 등에 대비하는 위험관리경영은 물론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품질경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식관리, 인적관리, 조직문화관리 등 기업경영을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현용기록관리가 K사의 지속 성장성(sustainability)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현용기록관리를 통하여 비현용기록관리도 함께 이어질 수 있어 데이터 축적을 통해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미래시장에도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용기록관리에 대한 연구나 성공사례 공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K사의 몇 가지 실적이나 수치만으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심층인터뷰 이외에도 K사의 성장과정이나 현재의 경영현황과 미래가치 등으로 미뤄보았을 때 현용기록관리는 K사의 경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용기록관리에 대한 K사의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소결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현용기록관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K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현용기록관리가 기업의 가치창출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방꾼(copycat)이나 추종자(fast follow)전략으로 시장을 확대해 온 과정에는 기록관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현용기록관리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험을 축적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장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현용기록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현용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현용기록관리의 필요성이나 편익에 대해 공감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현용기록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다. 앞의 현황에서 정리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없거나, 책임이 없거나,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사의 사례와 같이 현용기록관리가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현용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하되, 더 나아가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의 현용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현용기록관리를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국데이터거래소가 출범하여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본인 신용정보관리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제정하고 데이터청(廳) 설립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처리 및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가 기업들의 생존 경쟁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식정보자산(knowledge information assets)이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축적되고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결을 바탕으로 기업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기업 차원의 자체적 방안과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 활용 편익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4. 기업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및 활용 편익

4.1 기업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기업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적인 차원의 도입이 권고되는 제도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각 기업의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과 사례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기업에서는 먼저 기록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 구성이 어렵다면, 담당자 지정이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도 기업기록의 축적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각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조직의 업무 절차(procedure)를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맞는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이라도 조직의 업무 절차를 제정하면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및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의 축적과 이용을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며,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이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른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관리시스

템 등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임직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적자원이나 재정적인 문제 등에 도달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웃소싱을 통한 위탁관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투자대비효과분석(ROI) 등을 통하여 기업기록관리 도입에 따른 유무형의 가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차원의 자체적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이다. 물론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 도입 주체를 결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기업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기업기록관리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업의 차원을 넘어,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방안의 마련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적용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도입과 관련된 각 주체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의 도입은 각 기업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 제안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뿐 아니라, 공공기록 관리분야의 전반적인 경험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조달 입찰가점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중앙조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공공입찰 진행시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처럼, 평가지표에 기업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입찰가점을 부여한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록관리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의 도입을 권장하여 품질경영이나 환경경영을 장려하는 것처럼,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도입에 입찰가점을 부여해도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법적 가이드라인의 제정이다. 이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장벽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변화가 촉발된 것처럼 법과 제도에 명확한 규정을 정해놓으면 가장 확실하게 기록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위험관리경영, 품질경영, 지식경영 등의 차원에서 기업기록의 축적과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정기애(2010)의 연구에서 보듯이, 현재 해외에서 시행중인 기록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와 관련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의 확대이다. 이는 현재 각 기업에서 영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의무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기업이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보고서 가이드라인(GRI)⁸⁾에 맞추어야 하며, 특히 비재무적인 요소(ESG)⁹⁾ 등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 확대 및 이에 대한 기록관리만으로도 기업기록의 전반적인 부분이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법과 제도의 도입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로 인한 불이익보다 많은 편익이 예상되기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산업계와 학계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노력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6천명 이상이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고, 장기기증 부족으로 매년 수백 명씩 사망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에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제도를 명시적으로 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잠재적 기증자로 추정

8)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지속가능 보고서란 기업이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뜻한다. GRI의 주요 업무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이를 발표하고 각 나라 기업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는 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20년 7월 18일 검색.

9)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2020년 7월 18일 검색.

하는 옵트아웃(opt-out)제도로 ‘장기기증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서은철, 2020). 즉,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제도의 활성화 방향에 공감한다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자체적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활성화 방안은 기업의 현용기록관리(RM)에 대한 선행연구와 성공사례 등이 제한적인 가운데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기록현장의 질박함을 화두로 대안을 제시해본 것이다.

4.2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 활용 편익

전자정보통신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하여 빅데이터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내자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원유(crude)’에 비유하기 시작했다.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빅데이터가 없으면 정보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며 ‘기업들은 다가오는 데이터경제 시대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자산은 ‘데이터’이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용하여 가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빅데이터는 ‘빅(big)+데이터(data)’의 단순 합성어가 아니다. 빅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놓치게 되는데, 기존의 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메타정보와 센서 데이터, 공정 제어 데이터 등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나 이미지처럼 지금까지 기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빅데이터다(정용찬, 2013).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입수 및 처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IT환경이 빅데이터 플랫폼(big data platform)이다. 빅데이터 플랫폼¹⁰⁾이란, 빅데이터 기술의 집합체이자 빅데이터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이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및 관리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infrastructure)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라는 원석을 발굴하고, 보관 및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안정적 기반 위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기업의 업무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인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경영전략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등을 포괄하는 기업기록관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의 내부적 활용 편익을 살펴보면 기업기록관리의 유의미한 순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업무의 과정과 결과에서 생산되는 기업기록에는 기업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나 마켓 포지셔닝 등을 광고회사나 시장분석기관 등에 맡겨 왔지만, 기업기록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기업의 포지셔닝이나 정체성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홍보나 광고 혹은 브랜드전략 수립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조직역량을 키울 수 있다.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 만족도와 자사의 핵심역량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업기록에 기반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보다 정확하게 조직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성장배경이나 생활배경이 모두 다른 내부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를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10)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란? 국립중앙과학관 - 빅데이터 2020년 5월 24일 검색.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지식정보자산을 차별화할 수 있다. 기업의 기록관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기록 속에 담겨 있는 지속가능한 정보자산이다. 기업의 업무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지식들을 업무에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며 자사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기업기록관리의 활용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팀에서 데이터 분석가(data scientist)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다른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존의 시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상권을 창출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기능이였다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를 통하여 기업 내부에서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마다 인사, 총무, 법무, 홍보, 마케팅, 생산, 영업 등 기업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였던 기업 내부의 업무와 활동 분석도 빅데이터로 축적되고 분석되면 임직원의 직무배치나 업무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기업기록관리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의 기록관리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의 통찰력과 빅데이터가 시너지를 낸다면 기업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첫 민간데이터 거래소이자 유통 및 소비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지난해 출범한 한국데이터거래소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증권처럼 기업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데이터를 융합하고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산해 내기도 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데이터청·거래소 설립을 추진(송혜영, 2020)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수년 전부터 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기록을 축적하고 이용하면 자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하여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을 통하여 기업기록관리의 가치와 편익을 찾아 기업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업기록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직시하여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 기업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에 대한 의미를 확인해 보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관리경영과 품질경영 그리고 지식경영을 위한 기업기록관리의 필요성과 편익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책임도 없고 오히려 경계하고 있으며, 기록관리에 대한 법적 혹은 제도적 요구도 부족하다. 앞으로 기업들은 현용기록관리를 통하여 정체성 확립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효율성 강화의 차원을 넘어,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위험관리경영, 품질경영 그리고 지식경영으로서 기업기록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기업기록관리의 필요성과 편익을 확인하여 기업기록관리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둘째, 기업기록관리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관리, 특히 현용기록관리(RM)를 잘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사는 1990년부터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약 600만 건이 넘는 기록을 축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K사의 기업기록관리 성공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서도 비교분

석을 통한 전략수립과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기업의 현용기록관리를 위한 자체적,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용기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 방안으로 전담 조직 구성, 업무 절차 제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아웃소싱을 통한 위탁관리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공조달 입찰가점제도 도입,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 확대 등 기업의 현용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각 기업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점이 제한적이라 당장에 시행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를 조명하였다. 기업들은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축적과 이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사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이 자사의 정보자산인 기업기록을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이용하여,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조직역량 강화 및 지식경영 차별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의 활용 편익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확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화두를 제시한 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 대비 제한적인 기업기록 특히, 기업의 비현용기록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용기록의 축적과 이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기업기록관리의 필요성과 편익을 제시한 이 연구가 앞으로 기업의 현용기록관리에 대한 후속연구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익한 (2000). 한국의 기업기록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경남대 기록관리학 심포지엄.
- 김하경 (2007). 기업 사료의 수집평가방안 연구 - 메리츠화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2, 219-262.
<https://doi.org/10.20923/kjas.2007.15.219>
- 김효근 (2009). 성과 지향적 통합 지식경영 방법론으로의 진화: P=TC². KM&ECM Conference 2009. 서울: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
- 박서인, 김지현 (2020).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 4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2.041>
- 박용기 (2016). 공기업 기록경영 구성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1-28.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01>
- 서무경, 정이상 (2019).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마케팅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 멀티미디어 서비스저널. 예술인 문화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 3, March (2019), 871-880.
- 서은철 (2020). 영국 ‘장기기증법 2019’ 개정 의미 및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52.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서혜란 (2018). 기록과 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pp. 13-34). 서울: 조은글터.
- 설문원, 이해인 (2016). 전자증거개시상의 위협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4), 7-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4.007>
- 이동혁 (2018). 기업사료실 구축 현황 분석과 과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이정동 (2017). 축적의 길. 서울: ㈜지식노마드.
- 이진석 (2018). 국내 기업의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이혜영 (2018). 기록관리 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pp. 107-171). 서울: 조은글터.
- 임종철 (2007). 기업사료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임진희 (2019). CRMS 도입을 맞아 생각해보는 디지털 시대의 기록관리. 2019년도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61-67. <http://dx.doi.org/10.14404/PKSARM.2019.S.061>
- 정기에 (2007). 기업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기록물처리일정표 적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기에 (2010). SOC 건설사업의 기록관리 체계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기에, 김유승 (2009).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경영품질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경영평가모델과 기록관리 표준에 입각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31-58.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031>
- 정기에, 이정훈, 남영준 (2011). 위험관리체계의 기록관리표준 적용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11(2), 189-215.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189>
- 정미리, 임진희 (2016). 기업의 증거기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8, 45-92. <https://doi.org/10.20923/kjas.2016.48.045>
-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혜린 (2017). 원자력설계기록 품질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방안.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 공동 주최 학술회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조송암 (2017).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와 기록경영의 역할.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 공동 주최 학술회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조윤희 (2017). 한국남동발전 기록관 운영 사례.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 공동 주최 학술회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기업기록관리 (2000).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고은지 (2020. 04. 23). K사, UAE에 원전 배관 관리 프로그램 수출. 연합뉴스 온라인.
- 국제 기록경영시스템표준 컨퍼런스 (2009). ISO TC46/SC11 국내전문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서울: 63빌딩.
- 김영현 (2016. 12. 05). K사, 원전설계 해외매출 세계 2위...1천85억 원 실적. 연합뉴스 온라인.
- 서동철 (2020. 06. 27). 기업, 데이터경제서 살아나려면 위험관리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매일경제신문. A13면.
- 송충현 (2020. 04. 28). 정권 바뀌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숙명인가 봅니다. 동아일보. A1면.
- 송혜영 (2020. 06. 12). 여야 “데이터칭 만들겠다” 필요성 공감. 전자신문. 02면.
- 조성준 (2020. 03. 16). 통찰력을 갖고 싶은가? 빅데이터를 들여다보라. 중앙일보. A20면.
- Ellis, Judith (2009). “Better Records - Better Busines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anagement System Standard for Records, Theme2 - Management System Standards for Records: Vocabulary & Fundamentals - Contents & Implication and Australian situation] Oct.(2009). Seoul, Korea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Dissertation, Thesis & Book]

- Cho, Song-Ahm (2017). The Role of Data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Society of Archives,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Korea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forum Conference. Seoul: HUFs.
- Cho, Yoon-Hee (2017).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Korea South-East Power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Korea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forum Conference. Seoul: HUFs.
- Jeong, Hye-Rin (2017).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for the Quality of Nuclear Design. Korean Society of Archives,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Korea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forum Conference. Seoul: HUFs.
- Jeong, Ki-Ae & Kim, You-Seung (2009). A Study on the Between Record Management and Management Quality in Public

- Institutions: Malcolm Baldrige Model & ISO 15489.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31-58.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031>
- Jeong, Ki-Ae (2007). A Study on the Strategy of Record Management in Corporation and Application for Record Retention Schedule. A master's thesis. Dept. of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Jeong, Ki-Ae (2010). A Study on the Framework of SOC Projects' Records Management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Major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Department of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Jeong, Ki-Ae, Lee, Jeong-Hun, & Nam, Young-joon (201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to Risk Management Frame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189-215.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189>
- Jung, Mi-Ri & Yim, Jin-Hee (2016).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Evidence-Based Accountability of Corporations -Focusing on Sustainability Reports-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8, 45-92. <https://doi.org/10.20923/kjas.2016.48.045>
- Jung, Yong-Chan (2013). *Big Data*.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Hwa Kyoung (2007). A Case Study of a Acquisition & Appraisal Policy of Business Archives: With a Focus on Meritz.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2, 219-262. <https://doi.org/10.20923/kjas.2007.15.219>
- Kim, Hyo-Gun (2009). Evolution into a Performance-Oriented Integrated Knowledge Management Methodology P=TC². *KM&ECM Conference 2009*. Seoul: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 Kim, Ik-Han (2000). A Basic Study on the Management of Corporate Records in Korea. *Kyungnam University Symposium on Record Management*.
- Lee, Dong-Hyuk (2018).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Establishing Corporate Archives. A master's thesis. Major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Lee, Jeong-Dong (2017). *The Way of Accumulation*. Seoul: Knowledge Nomad Co, Ltd.
- Lee, Jin-Seok (2018). A Study of the Activation of the Management of Domestic Enterprise. A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im, Jong-Chul (2007). A Developing Framework for Corporate Archives Management Strategy Planning A master's thesis. Major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Park, Seo-in & Kim Ji-hyun (2020). A Study i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ublic Enterprise's Records Management for the Utilization of Record as Leg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2), 4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2.041>
- Park, Yong-Gee (2016). A Study on Development of Factors of Management for Records in Public Enterpri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2), 1-28.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01>
- Rieh, Hae-Young (2018).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107-171. Seoul: JoeunPB.
- Seo, Eun-Cheol (2020).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revision of the UK's Organ Donation Act 2019. *Foreign Legislation: Trends and Analysis*, 52.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Seo, Moo-Kyung & Jung, Lee-Sang (2019). A Study on Corporate Marketing and Customer Satisfaction using Big Dat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 3, March (2019), 871-880.
- Seol, Moon-Won & Lee, Hae-in (2016). *Business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4), 7-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4.007>

Suh, Hye-Ran (2018).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Records and Records Management, 13-34. Seoul: JoeunPB.

Yim, Jin-Hee (2019). Considerations of the Record Management of the Digital Age CRMS was Introduced.

<http://dx.doi.org/10.14404/PKSARM.2019.S.061>

[Newspaper Article & Other]

Cho, Sung-Joon (2020. 03. 16). Want to have insight? Look into big data. The JoongAng Ilbo. p.A2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anagement System Standards for Records (2009). ISO TC46/SC11 Korea Professional Committee, hosted b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Seoul: 63 Building.

Kim, Young-Hyun (2016. 12. 05) K company ranks second in the world in overseas sales for nuclear power plant design. The company's performance was 18.5 billion won. Yonhapnews Online.

Ko, Eun-Ji (2020. 04. 23). Company K, exports nuclear power plant piping management program to UAE. Yonhapnews Online.

Seo, Dong-Cheol (2020. 06. 27). In order to survive in the corporate and data economy, risk management is first based on data. Maeil Business Newspaper p.A13.

Song, Chung-Hyun (2020. 04. 28). If the administration changes, it will be right now and wrong then. The Dong-A Ilbo. p.A1.

Song, Hye-Young (2020. 06. 12).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 on the need to create a data office. The Electronic Times. p.02.

The adve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and the management of corporate records (2000). a research report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Seoul: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